



포항에 투자하십시오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 환동해권 국제물류 경제중심 영일만항 개항
- 영일만 자유무역지역과 배후 및 4산업 단지 조성
- 국제비즈니스센터와 융합기술지구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 테크노파크2단지과 국가산업단지 등 조성
-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오션리네상스시대 실현

대양과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포항의 현재입니다



봄봄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햇살 속에 황사도 같이 끼어들었습니다
 뿌연 하루에도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 시간이 다른 여러 잎이
 새순을 트고
 떡잎을 떨어뜨리고
 잎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햇살 함께 먼지를 쓰고 날아오르는 저 새들
 바깥엔 관심이 없어 안으로 안으로만
 더 깊이 들어가네요
 새들은 날아가고 거기 둥근 허공만 남겠지만
 살았었다는
 살다갔다는
 둥근 열매가 시간을 이어주겠지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현명

1966년 포항출생, 1997년 [포항문학]으로 등단, 2004년 [시경] 신인상, 시집 [저녁나무] <푸른시>등인

열린 포항

www.ipohang.org



»» 04



»» 08



»» 10



»» 12



»» 22

2009 3 CONTENTS

- 04 특집 | 해병대 포항주둔 50년
- 08 포항의 장인들 | 전통한복연구실 원장 조정화
- 10 역사산책 | 영일 냉수리 신라비
- 12 명사를 만나다 | 기청산식물원장 이삼우
- 14 우리 고장의 전래동화 | ① 장기면 신창리의 망재
- 16 문화칼럼 | 장기성에 기대서서
- 18 문화마당 | 연극 '휴먼코메디' / 해병축제
- 20 시정브리핑 |
- 24 포항레이더 |
- 26 의정브리핑 |
- 27 지상갤러리 |



포항주둔 50주년을 맞은 해병 제1사단의 위용
사진 • 정미향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방진모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정연학
- 발행일 : 2009년 3월 25일
-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Tel : 054 · 275 · 0558
- 인쇄 | 남진인쇄 Tel : 054 · 274 · 1567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된 포항과 해병 반세기



● ● ● 올해로 포항시와 해병대는 '남의 말을 들으면 곧 그 이치를 깨닫고 이 해하게 된다'는 이순(耳順)을 맞았다. 그렇게 포항과 해병은 그 눈빛만 보아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지난 3월 12일에는 포항주둔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지난 반세기를 함께 보내면서 한 몸이 되어버린 포항과 해병의 인연을 되돌아보고, 보다 발전된 새로운 반세기의 장도를 기대해본다. ● ● ●

포항은 신라 때부터 해군의 전진기지

포항은 예로부터 해군의 전진기지였다. 포항은 신라 때부터 왜구 침입의 요충지여서 조정에서는 포항을 국방의 전진기지로 요새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했다. 그러한 노력은 고려와 조선 조를 거쳐 오늘의 해병대 제1사단 주둔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려 말 왜구 침입이 극에 달했을 때 설치된 '통양포수군만호진(通洋浦水軍萬戶鎭)'은 포항이 처음으로 우리 역사에 적극 참여, 그 일익을 담당하게 된 역사적 사건으로 포항발달사의 첫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포항과 해병의 만남은 비록 반세기에 불과하지만 그 인연의 뿌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기질까지 닮은 포항 근현대사의 주역

포항과 해병의 인연이 이토록 깊고 질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찍이 포항은 거센 바다를 상대하면서 강인한 정신을 타고 났다. 그리고 '귀신 잡는 무적 해병'의 기백을 대변하는 해병대 1사단 또한 강인한 정신이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포항과 해병은 그 기질까지 닮아 지난 50년 동안 가족처럼 친근했는지 모른다. 1959년 3월 12일 해병대 1사단이 포항에 등지를 틀었다. 그때부터 포항은 해병대도시로, 군사도시로 대내외에 알려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 저력으로 포항은 1970년대 들어 철강으로 영일만 기적을 일으키며, 오늘날 세계적 철강도시로, 국내 굴지의 산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해병대는 포항 근현대사의 주역이었다.

화끈한 대민활동으로 가족이 된 해병대

해병대 1사단은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임무를 띤 국토방위에 막중한 부대이다. 특히 한국군 최초의 전투부대로 월남전에 참전해 혁혁한 전과를 올려 세계적 부대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최강 전력으로 국토방위와 세계평화에 헌신하면서도, 지역협력 또한 화끈하고 희생적이었다. 포항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곁에는 언제나 해병대가 있었다. 그런 해병대를 둔 포항시민들은 행복했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 ① 거대한 상륙함(LST)이 입을 열었다. 병력 수송용 상륙돌격 장갑차(KAAV)가 바다로 쏟아져 나온다.
- ② 귀신 잡는 무적 해병이 실감난다. 해병 특유의 전투에는 헤드캐리, 원형뎀핑, 패더링 등 IBS에서 시작된다.
- ③ 3월 12일 해병대 1사단 전투연병장에서 이치의 사단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 박승호 포항시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주둔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태풍피해로 망연자실한 현장에, 갑작스러운 산불로 진화가 절실한 현장에, 일손이 없어 농민들이 시름하는 현장에는 어김없이 해병대가 있었다. 그도 모자랐던지 의료봉사와 환경정비에도 힘을 보탤다. 포항주소갯기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포항스틸러스 응원까지 나서고 있다. 포항이 자랑하고 싶은 가족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해병대가 보여준 희생과 봉사와 강인함은 지난 반세기 포항사회를 지탱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포항을 140만의 고향으로 만든 해병대

특히 포항은 교육훈련단을 함께 두고 있어 모든 해병인들의 맘과 추억이 서린 곳이다. 그래서 90만 해병인들은 포항을 마치 내 고향이자 어머니의 품처럼 느낀다고 한다. '제2의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셈이다. 이 때문인지 해병인들의 결속력은 불가사의로 불릴 정도로 끈끈하다. 이렇게 포항은 지금 52만 도시가 아니라 140만 이상이 고향으로 여기는 메트로폴리스(거대도시)인 셈이다. 무엇보다 포항과 해병의 깊고 길진 인연은 '해병문화도시'를 탄생시켰다. 포항은 아마 '해병인축제'가 있는 세계유일의 도시일 것이다. 여기에 1년에 두 차례 포항에서 열리는 해병대체험캠프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이들 또한 포항에서 잊을 수 없는 체험과 추억을 만든다. 포항은 해병대로 인해 더 큰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보다 새로운 50년을 위한 다짐과 출발

지난 3월 12일 해병대 1사단(사단장 이치의) 전투연병장에서는 군 주요 지휘관, 박승호 포항시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장병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주둔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해병대는 포항사랑운동을 통해 모금한 장학금 등 1천200여만 원, 헌혈증서 500매를 포항시에 전달했다. 이어 포항시와 해병대는 오천읍 삼성병원 삼거리에서 조형물 제막과 함께 '해병로' 도로명명식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부터 일주일간 병력 3,500여명을 투입하여 자연정화활동을 벌였고, 600여 장병이 자매결연 지역 및 복지시설 33곳을 찾았다. 3월 15일에는 포항스틸러스 전용구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K-리그 홈 개막전에 장병 및 군 가족 3,600여명이 참여해 대규모 응원전을 펼쳤다. 3월 27일에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포항시민과 함께 하는 군악연주회를 연다. 이렇게 포항과 해병은 보다 새로운 반세기 인연을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해병대 1사단이 포항주둔 50주년을 맞아 무적 해병의 빛나는 전통과 명예를 드높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해병대, 더욱 튼튼한 천하무적 해병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포항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포항시민들은 해병대가 지역을 위해 흘린 맘과 희생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 ● ● 지난 50년 동안 포항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포항과 해병대가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다는 데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포항주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 포항시가 꿈꾸는 환동해권 국제물류 중심도시 실현을 강한 전투력으로 뒷받침하고,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해 포항과 해병대가 마음과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병대 1사단장 이치의 소장이 밝힌 포항주둔 50주년 의미와 감회이다. ● ● ●

활발한 대민활동으로 포항은 해병대를 가족처럼 느낍니다. 앞으로 포항과 어떤 관계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해병대가 처음 포항에 등지를 들었을 당시 작은 어촌도시였던 포항시가 지금은 인구 52만 명의 경북 최대도시로, 불모의 미개척지에서 경제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포항은 사단 장병들의 제2의 고향이고, 90만 예비역 해병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의 강한 힘과 사랑으로 포항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사단 전장병과 가족은 포항시민의 한사람이며, 해병대는 포항시민을 한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포항시와 해병대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군대 중에서 가장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지역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도움이 되는 사단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포항시-포특사가 정례적인 회동을 통해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군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포항시와 포특사 발전협의회는 포항시를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회의이며, 포항시민을 위한 협의회입니다. 포항시민들의 의견들은 포항시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포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포항시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문제와 회의의 진행을 위해 지금까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포항시민이 참가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발전협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항시는 해병대 창설 60주년 행사를 시승격 60주년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포항을 해병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는 4월에 있을 60주년 행사의 방향은 무엇인지요?

해병대 창설 60주년은 해병대가 그간 최강 해병대, 국민의 군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지역민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10일 해병대가 창설되었던 경남 진해에서 창설 기념식을 갖고,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Go! Marines Festival]을 통해 부대 개방행사, 장비전시, 병영체험, 페이스페인팅, 상륙훈련시범, 상륙돌격장갑차 및 IBS 탑승체험, 친선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Go! Marines Festival은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많은 시민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행사장을 방문하여, 해병대와 함께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항은 해병대 제2의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50년간의 변함없는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며, 강한 전투력으로 포항시를 지킴은 물론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결하고, 포항과 해병대가 50년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합니다. 포항시승격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①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해병대 상륙작전이다.
- ② 포항과 함께한 50년 농번기가 되면 어김없이 붉은 유니폼으로 들판을 물들인다.
- ③ 3월 12일 포항시는 오천읍 삼성병원 삼거리에서 '해병로' 도로명명식을 가졌다.
- ④ 사투 진지한 분위기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슬쩍 흘린 유머 한마디에 취재진을 배꼽 잡게 만든 해병대 1사단장 이치의 소장. 역시 그는 외유내강의 군인 이었다.





천의무봉

天衣無縫

조정화 전통한복연구실 원장

한복은

선과 색의 조화로 미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아름다운 복식문화라고 할 수 있지요.

바늘과 실, 다양한 천으로 우리민족 고유 복식인 한복을 짓는 일을 침선(針線)이라 일컫는다. 옛 사람들은 잘 지어진 옷을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바느질 흔적이 없을 정도로 옷을 짓는 사람의 지극한 정성이 배인 솜씨와 자신을 수련하며 참선(參禪)의 경지에 도달한 듯한 바느질 솜씨로 지어진 옷을 극찬하는 말이다. 그런 인고의 장인 정신으로 지난 30여 년간 우리 전통복식인 한복짓기를 배우고 익히며, 전승 보급코자 오늘도 한땀, 한땀 흔이 깃든 침선, 즉 손바느질에 여념이 없는 전통한복기능보유자 조정화(53) 전통한복연구실 원장의 공방을 찾았다. 먼저 한복의 특색을 묻자, 조원장은 선과 색의 조화로 이루어진 우리 한복의 멋스러움과 실용성, 그리고 복식에절의 중요성을 유난히 힘주어 설명하였다.

아이에게 내가 만든 옷을 입혀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모든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솜씨 좋은 친정어머니의 영향으로 바느질에서부터 공예나 매듭, 요리까지 재주가 남달랐던 조 원장이 본격적으로 한복을 배우게 된 계기는 의외로 참 소박하였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엄마가 되면서부터 아이에게 손수 옷을 만들어 입히고자 당시 거금을 들여 재봉틀을 구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80년대 죽도동에 있던 포항시여성회관에서 양재과정을 수료하고 한복기능사 자격을 획득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복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에게서 전수된 솜씨로 스스로 한복을 만들다 곧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포항에서 서울까지 매일 수차례 왕복하면서 중요무형문화재 89호 침선장(針線匠) 정정완 선생의 문하에서 우리 전통한복의 다양한 바느질과 마름질 과정 등을 기초부터 익혔다. 그러나 노년의 스승이 건강문제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11호 박광훈 침선장에게 계속 전통복식에 관한 다양한 침선기법을 사사하고 이수증을 받았다고 한다.

길의 끝이 저 멀리 보이는데, 지금 힘들다고 중도에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조 원장의 이러한 수련정신은 요즘 어떤 일에서든지 매사에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가정주부의 몸으로 포항에서 서울까지 일 년에 수십여 차례 오르락내리락하며 오로지 우리 전통한복을 기초부터 한 단계, 한 걸음씩 배우겠다는 부단한 끈기와 올곧은 집념으로 십여 년간 한 분야에 정진한 노력의 결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통한복기능보유자인 침선의 솜씨에 다다랐다고 한다. 그 과정에는 남편과 아이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가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한다.

포항에서도 전통복식 개인전을 열고 싶는데, 문화적 여건이나 관심도가 아직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라고, 말끝을 흐리는 조 원장은, 서울에서 수년째 운현궁과 남산골전통한옥마을에서 개최된 전국규모의 다양한 전통복식전시회에 다수의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제28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단체장상을 수상하는 등 크고 작은 공모전 수상경력도 수십 회나 된다고 한다. 현재는 (사)한국전통한복문화원, (사)한복문화학회, (사)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사)한국궁중복식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에서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 전통한복기능보유자 모임인 침선회 회원이기도 하다. 포항에서는 전문직 여성클럽과 포항 차인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전통기법의 손바느질을 정성스레 하고 있으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바느질 그 자체가 자신을 다스리고 가꾸는 수련인 셈이지요.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옷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포항에도 타 도시와 같이 전통문화공예관이 하루빨리 개설되어 시민들이 한복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포항여성문화회관에서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을 접목한 한복강좌에 수년간 강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에게 손수 만들어 입힐 생활에 편리한 우리옷 만들기 강좌에 적극 참여하여, 장차 자라나는 세대가 평소에 한복을 자주 접해야 우리 전통복식이 전승되고, 계승·발전된다고 믿는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포항에서도 복식문화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전통한복에 기초한 생활한복 강좌를 통하여 우리고유 복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노라며 조심스레 작은 포부도 밝혔다. 시종 밝은 미소를 짓는 조정화 원장의 인품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우리민족 고유 전통한복의 은은한 아름다움과 많이도 닮아보였다.



1 천의무봉(天衣無縫) 정성을 다해 완성한 한복은 손으로 만지기도 조심스럽다.

2 번뇌를 내려놓듯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갈 때면 손끝의 바늘은 내가 되어있다.



1

국보

제264호(1991. 3. 15지정)인 영일 냉수리 신라비는 현재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342-2(신광면 사무소 관내)에 있다. 이 비는 1989년 4월 6일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이상운(李相雲)씨 소유 밭에서 밭갈이를 하던 중 평소 걸림돌이 되어온 것을 파헤쳐서 팻랫들로 사용하려고 집으로 운반하여 물로 씻어보니 글자가 새겨져 있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학계에서 현지 조사한바,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비의 형태는 화강암의 자연석에 전면과 후면, 그리고 상면(上面)에 글씨를 새긴 비(碑)로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예는 법흥왕 11년(524)에 세워진 울진 봉평비와 12년(525)에 새겨진 울주 천진리 명기(銘記), 그리고 23년(546)에 세워진 영천 청제비, 진흥왕 22년(551) 무렵의 단양 적성비 등 신라의 고비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전통은 진흥왕 29년(568)의 북한산비(다음은 비석)에 와서 벗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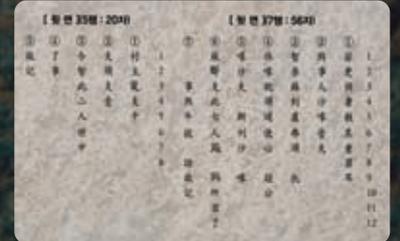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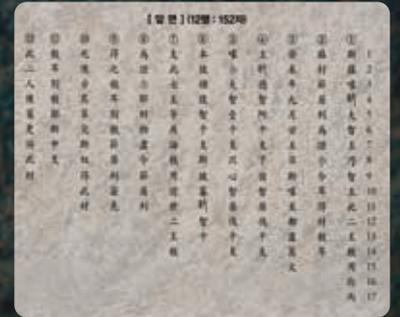
냉수리 비석의 크기는 폭 70cm, 높이 60cm, 두께 30cm의 돌로 하단이 넓고 상단은 폭이 축소되었다. 비석의 전면은 상단과 하단의 가로가 각각 65.73cm, 세로의 우측과 좌측이 각각 66.47cm이고, 후면은 가로 65cm, 세로의 우측과 좌측이 49.69cm이며, 상면은 가로 64cm, 세로 30cm이며, 측면의 폭은 30cm이다. 비문(碑文)은 전면에 12행 152자, 후면에 7행 56자, 상면에 5행 20자가 새겨져 있어 총 231자가 쓰여 졌다.

글자의 새김에는 세로의 줄과 가로의 줄이 맞추어지지 못하였으며, 글자의 가로가 맞추어지지 않은 것은 전면의 경우 각 행의 첫 자가 비스듬히 내려오면서 새겨졌기 때문이고, 시작하는 첫 자를 맞추지 않은 데에 기인하고, 줄이 비뚤어진 것은 돌의 흠을 피하기 위하여 썼기 때문이다. 이 비석의 글자는 해서체(楷書體)로 되어 있다. (고졸한 예서체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비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신라의 실성왕(斯夫智王)과 내지왕(乃智王) 두 왕이 진이마촌(珍而麻村)의 절거리(節居利)에게 재산 취득을 인정하고, 교(敎)를 내렸는데 계미(癸未)년 9월 25일 지증왕(至都盧葛文王) 등 각 부의 대표 7명이 함께 논의하여 두 왕의 조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 별교(別敎)를 통해 절거리가 죽은 후에는 아우 아사노(亞斯奴) 또는 아우의 아들 사노(斯奴)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미추(未鄒) 사신지(斯申支)는 재물 분배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중죄에 처할 것임을 결정한다. 이 명령은 중앙기관의 전사인(典事人) 7명과 지방관서의 촌주(村主) 2명이 일을 마치고 이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이 비석을 세웠던 계미년(癸未年)에 대해서는 서기 383년 443년 483년 503년 등 여러 학설이 있다.

출전 : 포항시사 편찬위원회 『浦項市史(上)』, 65~70쪽, 1999



2 | 3

국보 제264호

영일 냉수리 신라비

●●● 이 비문에는 중국 문서에서 발견되는 신라의 옛 국명인 사라(斯羅)가 최초로 나오고, 또 최초로 임금(지증왕)의 본명이 '지도로'라는 이름이 나타났으며, 휘부(喙部)·사휘부(沙喙部) 등 신라의 옛 지명과 아간지(阿干支)·나마(奈麻) 등의 관등명이 나타나 신라 상대(上代)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1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342-2(신광면 사무소 관내)에 있는 국보 제264호 영일 냉수리 신라비

2 영일 냉수리 신라비 앞면과 뒷면 판독문

| 옮긴이 | 편집실 | 사진 | 정미향

기청산식물원장

이삼우

●●● 3월 5일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식물원 곳곳에는 봄 향기가 가득했다. 취재진이 들어서자 방금 꽃망울을 터트린 매화처럼 환하게 웃는 그의 손에는 구멍 난 목 장갑과 호미가 들려 있었다. 개량한복에 멋스럽게 넘어간 그의 흰머리는 이미 자연을 닮아 있었다. [열린포항]은 평생 이곳 식물원에서 이름도 낯선 들꽃과 나무를 가꾸며 살아온 기청산식물원장 이삼우 씨를 만나 그가 애지중지하는 식물원과 남다른 나무사랑 얘기를 들어 봤다. ●●●



2



3



4



5

대다수

포항 시민들은 기청산식물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곳입니까?

그 간에는 널리 알리려 애쓰지를 않았습니니다. 우리 토종식물을 주로 전시하는데다 자연주의적 철학으로 별스런 형태의 개성

있는 식물원을 조성하다보니 알록달록 화려하고 큰 것을 좋아하는 다수 대중들의 기호에 부응하지 않는데다가, 아직 국민들의 식물감상에법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시점이어서 훼손의 위험이 다분한 지라 최대한 개장을 늦추어 왔던 셈입니다.

이 식물원의 특징은?

요약해서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인간에게 유익하고 조물주께서 보시기에도 좋을 식물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0여종의 토종식물들을 자연스럽게 박물관식으로 전시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000여 평의 평지이다 좀 특별하거나 유익한, 아니면 구수한 얘기거리가 되는 식물들을 수집·전시한 곳입니다.

식물원을 둘러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식물원 관찰로를 한 바퀴 돌면 우선 머리가 맑아집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나 철학자들은 산책을 즐겼다고 합니다. 빌딩숲 사잇길이 아닌, 거목들이 잘 어우러진 공원이니 강변을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맑아진 두뇌로 기발한 구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식물원 속 오솔길을 따라 고급스러운 수목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으며, 기화요초들로 사시사철 이어지기에 특별한 나무며 꽃들과의 만남에서 잔잔한 흥분이며 감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식물원을 관람하면서 속세의 일들로 고뇌하고 초조해하는 사람을 본적은 없답니다. 너무나 풀꽃들의 맥박이며 꽃들의 아름다운 정서를 닮게 되는 것이지요. 들어 올 때와 나갈 때의 표정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이 식물원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2시간 체류하게 하는 것만 해도 지역 관광산업이며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 할 것입니다. 사실 포항 시민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지요. 포항 중심에서 30분 거리에 기청산식물원이 있고, 이곳에서 20분 거리에 경북도립수목원이 있으니, 타 도시들이 부러워할 조건들이지요. 녹색산업의 핵심이니까요.

식물원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기능은 어떤 것인지요?

15년 전 일본의 도쿄 부근의 '하코네습지식물원'이라는 한 작은 식물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연간 50만 명이 다녀간다 합디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식물원 같은 식물원이 두 셋 뿐이었는데, 일본의 등록 된 식물원 수가 130여개소라 하더군요. 왜 그렇게 많은가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엉뚱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순박한 국민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장려하기 때문이라더군요. 그때는 그 뜻을 제대로 몰랐었지요. 법을 어기는 동기의 절대다수가 스트레스 적체현상이라고들 합니다. 식물원이란 곳은 맑고 선한 기가 가득 흐르는 곳이기때문에 스트레스가 잘 풀어지고, 그리고 다수 대중이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고뇌의 피난처이지요. 국가와 국민의 건전한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천사들의 사업이겠습니까. 하느님은 미스월드 보다 한 송이 할미꽃을 더 사랑하실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따금씩 하게 된답니다.

돌아가는 취재진에게 그는 애써 주차장까지 배웅하겠노라며 나선다. "손님이 온다기에 아침 일찍 산책하다 뽕 선물할까 고민했지 그래서 요걸 준비했는데 내가 줄 것이 이것밖에 없어."하며 내미는 것은 터질듯 빨강계 입 다문 매화다. 후 나무가 마를까 물 적신 천에 호일까지 감은 그의 정성이 고마움에 앞서 죄송하기까지 하다.

1 하루에도 몇 번씩 둘러보는 식물원이지만 사시각각으로 그 모습을 바꿔간다.

2 손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수많은 시간들 그 정성만큼이나 잘 자란 나무들을 볼 때면 자연의 정직함을 새삼 느낀다.

3 꽃샘추위? 조금은 살살하다. 차 술을 걸고 손수 끓여주는 두충차 한 잔은 봄 향기 가득한 특별한 맛이다.

4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나뭇잎사이로 빼꼼히 얼굴을 내미는 새싹들 까지도 일일이 설명해주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5 식물원 곳곳에는 금방 터질 듯 한입기득 꽃망울을 물고 있는 매화가 한창이다. 계절은 사람보다 식물에게 먼저 찾아온다.

| 사진 | 정미향

옛날

옛적 바닷가 외딴곳에 가난한 어부가 살았어요. 부지런히 뱃일을 한 덕에 배푼지 않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이 싫어졌어요. 어제 일이 오늘 같고, 오늘 일이 또 어제 같았거든요.

"아! 사는 게 참 재미없어."

뱃일 갈 생각은 않고 늘어지게 하품을 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렇게 부지런을 떨던 사람이?"

"우리에게도 예쁜 아이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

"참 싱겁기도 하지. 이 나이에 무슨 아기 타령을 ……."

아내가 피씩 웃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그 간절한 기다림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열 달 뒤 오두막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선녀가 내려온 것 같은 예쁜 여자 아기였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여선이라고 지었대요.

어부는 다시 부지런히 바다로 나갔답니다. 딸이 생기고부터는 다른 때보다 곱절의 일을 했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았대요. 아기 얼굴만 보아도 힘이 부쩍부쩍 솟았어요. 아기업고 장에도 갔어요. 하루는 땡기 사고, 하루는 꽃신 사고, 또 하루는 저고리, 다음 장엔 복주머니를 샀지요.

방긋방긋 해님처럼, 토실토실 달님처럼, 산처럼 바다처럼 어질고 지혜롭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여선이가 푸릇푸릇해지면서 어부는 하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바다처럼 듽직한 총각이 없을까요?"

할머니가 슬며시 말을 꺼냈어요.

"뉘하게?"

"뉘는요. 우리 아기 시집보내게요."

"안 돼!"

"아니, 왜요?"

"아까워서 난 못 보내."

눈물 고개

장기면 신창리에는 왜구에게 잡혀간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눈물로 올랐다는 고개, 망재가 있다. 죽하 마을 대나무 숲에 여선낭자영세불망비(如仙娘子永世不忘碑)를 세웠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 글 | 김일광 · 동화작가

| 그림 | 최수정

할아버지는 불통불통 거리며 돌아앉았어요. 할머니는 그만 풀썩 웃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기는 할머니도 마찬가지로였으니까요. 오래 오래 같이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중매쟁이를 찾아갔어요.

가을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뱃일을 잠깐 접어두고 추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을걷이가 끝나면 여선이 짝을 지어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왔답니다.

"부잣집도, 아니 아니, 높은 벼슬 아니 아니, 고린 샌님 아니 아니."

할아버지는 그저 여선이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착하고 부지런한 총각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왜구들이 들이닥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재빨리 읍성 안으로 피난을 갔어요. 외딴 집에 살던 여선이네만 까맣게 몰랐던 거지요.

"이를 어찌, 이를 어찌."

뒤늦게 이를 안 할아버지 가족은 앞서고 넘어지며 허둥지둥 산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러나 도둑들이 해님처럼 밝고 달님처럼 맑은 여선이를 보고 말았어요.

여선이가 탐이 난 도둑들은 선뜻 물러가지 않고 버티었어요. 마을을 돌면서 한집씩 불을 놓기 시작했어요. 속을 태우던 사람들은 한 노인을 대표로 뽑아서 도둑들에게 보냈어요.

"이제 곡식을 훔쳤으면 돌아갈 일이지. 왜 불을 지르며 버티는 것이요?"

"처녀를 데려와라."

"처녀라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상하게 한 사람이 수십인데 어린 처녀를 넘기라니 말도 안 되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마을을 전부 불태우고 너희들이 성 안에서 모두 굶어 죽을 때까지 이곳을 떠

나지 않을 거다."

도적들은 창과 칼을 휘번뜩이며 다시 불을 놓기 시작했어요. 죽을 각오로 대들던 노인도 그만 풀이 죽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이겠다는데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어떤 처녀를 원하시요."

"해님처럼 밝고 달님처럼 맑은 처녀라야 해."

어디 생각처럼 처녀를 뽑을 수 있었겠어요. 부모들은 모두 딸을 부둥켜안고 한사코 고개를 흔들었어요. 더구나 해님처럼 밝고 달님처럼 맑은 처녀라니요.

"맞아요. 외딴 집 여선이요. 여선이가 ……."

뒤쪽에 앉아있던 중매쟁이가 무릎을 쳤어요.

"그래, 여선이라면 해님처럼 달님처럼 ……이 될 거야."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네들 대신 힘없고 가난한 여선이가 도둑에게 가주기를 바랐어요.

노인이 여선이를 찾아가 사정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었으면 죽었지 딸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버텼어요. 처음에는 달래고 권하던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타는 집이 늘어나자 떼를 쓰다가 나중에는 으름장까지 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을 다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갈게요. 대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여선이가 떠난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갯마루에 올라가서 여선이를 기다렸어요. 울면서 올랐다가 울면서 내려왔지요.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갔어요. 여선이 덕분에 있었을까요. 뻥질나게 도둑질을 오던 왜구들도 발걸음을 푹 끊었어요. 왜구들이 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차츰 여선이를 잊어갔어요.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날이었어요. 등불을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을 나섰어요. 진눈개비가 뿌리는 날 쉬어도 좋으련만 혹시 여선이가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길을 놓칠까 봐 서둘렀어요. 고갯길은 너무나 미끄러웠어요.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애비 애미 여기 있다.

바람결에 소식 오랴. 물길 따라 네가 오랴.>

휘이휘이 흐느끼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보라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졌어요. 밤새도록 하얀 눈이 그 위를 덮었어요. 이듬해 그 고갯길에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그마한 대숲을 이루더니 대나무들이 서로 가슴을 비비대며 울렁울렁 울기 시작했대요.

<바람결에 소식 오랴. 물길 따라 네가 오랴.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애비 애미 여기 있다.>

장기성에 기대서서

| 글 | 이동욱 · 경북일보 편집부장

| 사진 | 정미향

봄비

그치고 장기읍성에 봄풀이 파릇파릇 자라난다. 17세기국정운영의 중책을 맡았던 역사 속 거목 우암 송시열과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 조선사회 변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고뇌가 서린 곳. 그들의 외락와락 치솟던 나라 위한

충정처럼 푸른 잎들이 또 저렇게 무성히 돋아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은 참으로 복된 곳이자 포항시가 아끼고 가꾸어야 할 큰 문화의 자산을 간직한 곳이다. 어려워진 경제여건 때문에 모든 정책이나 사유체계까지도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고 자본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것처럼 우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문화자산을 소중히 가꿔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하듯이 문화 인프라도 다듬고 가꿔야 하는 것이다. 시 한수 적어 넣어 돌비석 하나 세워 놓았다고 위안할 것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혼란한 때일수록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삶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는 334년 전 1675년, 우암이 69세 때인 윤5월 장기현으로 와서 6월11일 우리안치(圍籬安置)돼 4년 동안 유배생활을 한 곳이다. 우암이 어떤 인물인가. 17세기 중후반 사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양란의 결과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돼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강력한 군사대국인 청나라가 중원의 주인이 됐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 국정의 주요 과제가 됐던 때다. 이러한 국가 위기상황에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력한 국가 이념을 추진할 인물이 요구되던 때 국가의 정책 기틀을 잡은 인물이다. 우암은 이 같은 조선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한 시대를 이끌어간 대표적 학자이자 정치가였다. 그는 대내적으로 예치(禮治)를 표방, 도덕적 문화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존주론(尊周論)을 제시해 주나라로부터 면면히 계승돼 온 인륜을 중시하는 중화문화의 존중 발전을 조선문화의 수호논리로 삼았다. 이처럼 당대 최고의 정객이자 사상가인 우암이 장기로 유배와 이곳 서생들에게 유학의 진수와 중앙 정계의 동향을 전파했던 것이다. 당시 궁핍한 바닷가 작은 마을에 불과한 장기현에 우암의 유교 인맥이 형성되는 혁명적 문화전파가 이뤄진 것이다. 4년여 유배기간 동안 남긴 저술과 시문을 최소한 번역 소개하는 작업이나 전시해 놓는 공간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

또 장기는 208년 전인 1801년 다산 정약용이 유배 온 곳이다. 1801년 2월 7일 유배가 결정된 이후 3월 9일 장기에 도착했으나 계절적으로는 딱 이맘때쯤일 것이다. 이곳은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지를 옮기기 전 200일 조금 넘는 짧은 기간의 첫 유배지였지만 당시 민생의 고통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잔혹한 봉건적 지배구조에 대한 깊은 고뇌를 안고 있던 그로서는 마음 속 회한을 마침내 토해내기 시작했던 곳이다. 그는 중화(中華)주의에 매몰됐던 우리의 역사와 지리, 풍속과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정립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해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 경세가였다. 1801년 10월20일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사건으로 다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될 때까지 220여 일간의 장기 유배생활에서 오직 시작(詩作)과 학문에만 전념해 「기성잡시」27수, 「장기농가」10수, 「고시」27수 등 130여 편의 시가와 효종이 죽은 해에 효종의 복상(服喪)문제로 일어난 서인과 남인의 예론(禮論)의 시비를 가린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 한자 발달사에 관한 저술인 「삼창고훈」, 한자 자전류인 「이아술(爾雅述)」6권, 아들에게 보낸 3통의 편지글을 남겨 풍요로운 다산문학에 향기를 더했다. 장기로 유배된 다산은 짧은 기간이지만 대부분의 유형을 산 전남 강진에서 지은 시의 수에 비교될 만큼 많은 시편을 남겼다. 파란의 관직생활 동안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 두었던 저술에 대한 생각들을 이곳 장기에서의 8개월여 동안 한꺼번에 풀어낸 것이다.

다산은 장기로 유배된 이후 지방관리들 보다는 촌로들이나 어부들, 민초들의 삶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였고 이러한 그의 심상은 고스란히 그의 시로 형상화되고 있다. 탁월한 과학자이기도 했던 다산은 고기잡이 기술까지 어민들에게 가르쳐준다. 당시에는 고기 잡는 그물로 칠렁쿨을 쪼개 엮은 것이 고작이어서 대부분의 고기를 놓쳐버리기 일쑤였다. 다산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어부들을 불러 무명실과 명주실로 그물을 만들 것을 권하고 부식을 막기 위해 소나무 껍질 삶은 물에 그물을 담갔다 사용할 것을 가르쳤다. 다산의 말에 따라 새로 그물을 만들어 고기를 잡아 본 어부들은 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높은 어획량을 올렸고 이 소문이 퍼져 장기현의 무명과 명주실 값이 두세 배나 경추 뛰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다산의 실학, 과학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다산은 이같이 유배지 장기에서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썼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편들에도 다산의 애민정신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장기는 이처럼 조선시대 큰 변혁기를 살다간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경세가 두 사람의 자취가 서린 곳이다. 이곳에 기념관이라도 건립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린다면 문화관광 자원으로도 손색없을 것이다. 신창리 앞바다가 바라보이는 단어한 장기읍성 안에 조선시대 민가의 모습을 재현하고 두 선각의 뜻을 기리는 행사라도 연다면 비단위에 꽃을 수놓는 격이 아니겠는가.



[공연]

»» 포항시 초청, 연극 '휴먼코메디'

- 공연일시 : 2009년 4월 29일~30일 19:30~21:00
- 공연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줄 연 : 고재석, 노은정, 이상미, 이지선, 방현숙, 천재홍
- 식전행사 : 농악대 사물놀이, 포항문화원 예술단 공연
- 관 랑 료 : 전석 20,000원(유료문화회원, 장애우, 단체 30% 할인)
- 공연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
- 유료회원예매 : 포항문화예술회관 054-270-5483
- 관람연령 : 10세 이상

»» 해병대 60주년 기념음악회

- 주최주관 : 포항 해병대
- 공연일시 : 2009년 3월 27일 19:00~21:00
- 공연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연령제한 : 전연령

»» 시립교향악단 94회 정기연주회 - 20세기의 낭만

- 일 시 : 2009년 4월 10일 19:3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랑 료 : 무료(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가능)
- 관람연령 : 7세 이상
- 줄 연 : 시립교향악단(지휘/유종)
- 프로그램 : 브라질 농민의 작은 기차/빌라 라보쉬, 피시픽 2-3-1/오스게어, 피아노 협주곡 F장조/거쉬인, '선녀/뒤카, 현을 위한 아다지오/바버, 라 발스/라벨

»» 시립합창단 제69회 정기연주회

- 주최주관 : 문화예술회관(270-5483)
- 공연일정 : 2009년 4월 16일 19:30~21:00
- 공연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연령제한 : 초등학교이상

[모집]

»» 포항문학 신인상 작품 공모

- 올해로 창간 29주년을 맞은 '포항문학이 지역문단의 새로운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품을 공모한다.
- 부 문 : 시 5편 이상, 수필 3편 이상, 단편소설 1편 이상, 문학평론 1편 이상
 - 자 격 :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로서 문단에 등단하지 않은 사람에 한함.
 - 요 령 :
 -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해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받지 않습니다.)
 - 표절로 밝혀지면 당선을 취소한다.
 - 겹봉에 '포항문학신인상 응모작' 이라 쓰고 응모 부문을 써주십시오.
 - 연락처 및 약력, 주소, 이름은 원고 맨 앞장 별지에 작성해 주십시오.
 - 응모작은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작품이어야 합니다.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마 감 : 2009년 4월 30일(당일 우체국 소인 유효)
 - 보낼곳 : 791-220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 33번지 대동고등학교 내 『포항문학편집위원회』

»» 북 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모집

-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라는 슬로건으로 포항에서도 북 스타트 운동이 시작됩니다.
- 운영취지 : 그림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시키며 부모들에게는 그림책 활용의 중요성을 알게 함.
 - 운영기간 : 1기 / 3. 12~4. 30, 2기 / 5. 7~6. 25, 3기 / 9. 3~10. 22, 4기 / 11. 5~12. 24 매주 목요일 10시~12시
 - 접수기간 : 기수별 접수기간 다름
 - 접수방법 : 포항시립어린이도서관 선착순 접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아기수첩 지참)
 - 대 상 : 3세~4세(2005년생~2006년생)
 - 인 원 : 아기 20명, 보호자 또는 양육자 20명
 - 참 조 : www.philib.or.kr
- ※ 책 꾸러미 선물 증정 (기방, 손수건, 그림책 2권, 가이드북, 추천도서목록 등)



Marines Festival



가자! 해병축제

해병대 창설 60주년과 포항주둔 50주년을 기념하는 [Go! Marines! 페스티벌]이 오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해병사단 일원과 형산강체육공원에서 펼쳐진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시	내 용	장 소
음악회 (위문열차)	4.17 19:00	식전행사 / 연예인 축하공연	형산강둔치
페스티벌 개막식	4.18 10:00	공식행사 / 행사장관람	연병장
독도함 공개행사	4.18	독도함 견학	포항항
친선 체육대회	4.18~4.19	연예인팀, 포항지역팀	전투연병장
호국문에 경연대회	4.18	초중고 문학·회화 경연대회	전투연병장
무기 / 장비전시	4.18~4.19	주요 무기 / 장비 전시	전투연병장
병영생활체험관	4.18~4.19	일일 병영생활 체험	전투연병장
병영훈련체험	4.18~4.19	유격, 공포탄 사격, 모의수료탄	장애물교장
병영식사체험	4.18~4.19	전투식량 및 병영식 전시	전투연병장
군복및장비착용체험	4.18~4.19	군복 및 특수복장	전투연병장
해병대홍보관	4.18~4.19	해병대 역사	사단역사관
사진전시 / 페이스페인팅	4.18~4.19	역사 및 전통 / 페이스페인팅	전투연병장
상륙훈련시범	4.19 14:00	상륙훈련 시범 / 참관	도구해안
KA AV / IBS탑승체험	4.18~4.19	장비설명 / 탑승체험	도구해안

»» 아름다운 삶을 위한 실천 - 만원의 행복

- 일만원으로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세요. 일만원으로 유료문화회원이 되시면, 포항시 주최 모든 공연 및 전시 홍보물, 무료초대권(일반 1인 매, 1가족 5매)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고, 유료공연 시 20~30% 티켓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및 문의 : 054-270-5483 /
 - 입금계좌번호 : 대구은행 210-05-000577-4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구·경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포항유치에 ‘힘’ 모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포항중심 유치를 위해 대구 경북지역 자치단체들과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3월 12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박승호 포항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대구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대구 경북지역대학교육협의회, 포항공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 경북포럼 등 10개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인 기초 응용 산업화를 통한 비즈니스화를 촉진하려면 과학기술과 산업연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조성 기반이 갖춰진 포항을 중심으로

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유관기관별 역할분담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 박승호 포항시장은 “포항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과 방사광가속기, 나노기술집적센터, 지능로봇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풍부한 R&D기반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한 연관 산업단지가 집적돼 있는 만큼, 포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추구하는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잘 조화를 이룬 최적지”라며 포항유치를 강조했다.

포항시, 재정 조기집행 발주실적 경북선두

포항시(시장 박승호)의 건설공사 조기발주 등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3월 5일 기준 경북도내 시군별 예산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따르면 포항은 올해 1조 1,000억 규모의 예산 중 6,269억 원의 사업을 발주해 56.6%로 도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포항시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 등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반(단장 윤정용 부시장)과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경제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 지난 1월 15일 새벽 6시에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한 업무보고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와 관련 수시로 긴급회의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해 왔다.

경제위기 조기극복 위해 추경 앞당긴다

포항시는 경제위기를 조기극복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6~7월에 실시하던 1회 추경시기를 앞당겨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1회추경예산은 4월초 포항시의회에 제출해 포항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소모성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사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된다.

또 해외경비와 행사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연례 반복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고, 일반경상비를 10%이상 절감하는 등 절감실행 예산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 극복사업에 전액 재투자하기로 했다.

포항시, 키르기스스탄과 자원외교 시동



포항시가 키르기스스탄 공화국과 손잡고 자원 외교에 나섰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3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레리 코르니엔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비슈케르시 부시장 일행의 방문을 받고 양도시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박 시장은 교류의향서 체결에 앞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은 우리나라와 구석광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알고 있다”며 “키르기스스탄의 풍부한 자원을 포항지역의 철강관련 업체들이 활용하고 포항의 철강업체들은 제철기술을 포함한 첨단과학 인프라를 비슈케르시에 제공하는 상생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르니엔코 부시장은 “포항시의 우수한 첨단과학 인프라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포항의 기술력이 비슈케르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교류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산업 등 다방면에서 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일만항, 부산항과 협력체제 구축

올해 8월 개항예정인 포항영일만항이 부산항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연안항로 개척에 청신호를 올렸다. 포항시와 포항영일신항만(주),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은 3월 10일 포항시청에서 박승호 포항시장, 김형남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대표, 권준영 포항지방해양안전청장, 최동준 포항영일신항만(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과 운영관련 정보공유 및 기술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구·경북 기업들이 유럽 미주 등 원양 수출입 물동량을 부산항이 아닌 영일만항을 이용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화주나 물류주선업자(포워드)가 부산항 이용 시 발생하는 대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영일만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 대표 홈페이지 ‘새롭게 태어났다’

포항시 대표 홈페이지 (<http://www.ipohang.org>)가 개편을 완료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포항시는 누구든지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3월 9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웹 접근성 개선 및 웹 표준 준수 ▲웹사이트 서비스 속도 개선 ▲시정자료실 코너 개설 ▲시민홍보코너 강화 ▲멀티미디어 보강 ▲서버 기반의 자동 전자책 솔루션 도입 등이며, 자주 찾는 메뉴를 홈페이지에 방문한 시민 개개인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특히 전자책서비스(<http://ibook.ipohang.org>)를 새롭게 신설해 공지사항, 시정자료실 등 각종 게시판 정보를 등록된 자료의 부 프로그램 없이도 볼 수 있게 구성했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처럼 서비스 업그레이드



이제는 점심시간에도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는 3월부터 순번대기번호표를 신설한 것은 물론 점심시간 내 차량등록 업무시행, 천장부착용 안내판 설치, 현금 입·출금기 등을 설치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그동안 사업소 내 은행출장소에서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아 등록·취득세 수납업무가 지연되는 등 시민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사업소는 은행출장소와 협의를 거쳐 점심시간에도 수납업무를 가능하게 하고 현금 입·출금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점심시간에도 차량민원 업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순번대기번호표와 천장부착용 안내판을 설치해 이전 개별창구방식에서 통합민원창구로 민원업무를 개선하는 등 전 직원의 업무공유로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어려운 가정과 1촌 맺기 운동 벌인다

포항시 공무원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1촌 맺기를 통해 정신적 물질적 후원자로 나선다. 시는 3월부터 분청과 사업소, 구청은 부서별로 담당 읍면동의 신민군총과 각 읍면동은 소속 읍면동 대상자들과 1촌 결연을 맺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1촌을 맺은 공무원은 ▲주1회 안부전화 ▲각종 기념일 챙기기 ▲지원금 신청 안내 및 대행 ▲신민군총(위기가구)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시책 홍보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후견인 역할 등을 담당한다.

시정소식, LED 대형전광판으로 내보낸다



포항시(시장 박승호)가 3월 2일부터 LED대형전광판을 통해 시정소식을 전한다. 시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오거리(영진빌딩 6층)에 10억 원(시비 4.5억, 민자 5.5억)의 사업비를 들여 가로 12m, 세로 8m 규모의 디지털 풀 컬러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LED대형전광판은 역동적인 시정홍보로 생동감 있는 도시이미지 창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지역기관·단체와의 교류·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꾸며질 계획이다. 하루 평균 18시간 운영될 LED전광판은 전체 광고 중 50%는 각종 축제·행사·공지사항 등 시정홍보를 비롯한 공익광고로, 나머지 50%는 상업광고를 표출한다. LED대형전광판은 건물임차료·전기료 등 제반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10년간 계약 운영된다.

일본대사 “일본 기업 및 관광객 유치 돕겠다”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대사가 포항의 일본기업과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게이에 주한일본대사는 지난 2월 26일 일본대사관에서 박승호 시장으로부터 포항시의 일본기업 및 관광객 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 시게이에 대사는 “박 시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 포항은 산업적·관광적 측면에서 모두 매력적인 도시이며, 활발하게 성장하는 도시임을 알게 됐다”며 “우선 오는 4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일본부품소재산업 관련 전시회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정보와 회사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진출 일본기업 300개 이상이 참여해 SJC(서울재팬클럽)을 결성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미쯔비시와 같은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며 “박 시장이 원할 경우 이들을 상대로 포항이 투자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포항의 일본인 관광객 1만 명 유치노력과 관련 “구룡포 일본인 집단 거주지는 일본인 관광객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될 것이며, 죽도시장과 같은 재래시장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최근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트렌드는 ‘먹거리여행’으로 포항의 싱싱한 해산물을 일본인들의 구미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포항관광 시티투어 운영

포항문화원은 대통령의 도시 포항을 널리 알리고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포항관광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시티투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포항역 광장에서 출발해 약 7시간 30분 동안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체험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주)영일만관광(054-243-7979)에서 매주 금요일 정오까지 토요일, 일요일 각각 40명의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3천원, 관광지 입장료 및 식비는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민관군 형산강살리기 범시민 자연정화활동 전개



포항시는 3월 9일 형산강둔치에서 ‘형산강 살리기 범시민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대대적인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은 해병대 제1사단 포항주둔 50주년과 2009 세계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병대 제1사단과 함께 형산강환경지킴이, 자연보호협의회,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등의 환경단체, 포스코 등 기업체,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 등 민관군 3,4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단체와 시민들은 형산강 하구에서 포항시민의 식수원인 경주시 강동면 국당 2교까지를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생활제조와 의장대 시범, 고공강화 시범, 해병대 수륙장갑차 승차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 절약 관련 시설물 전시장을 설치해 물 절약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첫 일본인 관광단 3박4일 일정으로 포항방문



포항시가 올해 일본인 관광객 1만 명 유치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첫 일본인 관광단이 포항을 찾았다. 포항관광의 첫 번째 손님인 후쿠야마시의 중소기업가 동우회 회원들이다. 포항시의 자매도시인 후쿠야마시 중소기업가 동우회 미야자키모토이씨 등 24명의 회원들은 3박4일 일정으로 지난 3월 5일 저녁 포항을 찾았다. 이들은 포스코역사관 견학을 시작으로 구룡포 일본인 가족과 호미곶 광장, 등대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가 덕실마을과 송라면 보경사 방문에 이어 영일만 신항과 죽도시장, 중앙상가 등을 관광하고 8일 경주를 거쳐 3박 4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포항 명물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재가동

포항 명물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가 약 30일간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3월 10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이번 정비기간 동안 해양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수중 케이블 전기시설과 모터 펌프 등 전반적인 수리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기간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한 만큼 보다 힘찬 물줄기로 포항시의 기상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포항시, 폐형광등 수거 우수지자체 선정

포항시가 전국 238개 지자체가 참여한 폐형광등 집중수거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 조명재활용운동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 한국환경지원공사, 자원순환연대가 후원한 이번 경진대회는 2008년 12월 시행한 집중수거기간 동안 수거된 폐형광등량과 연간 재활용량 등으로 우수 지자체를 평가했다. 포항시는 경진대회 기간 동안 21,000개의 폐형광등을 수집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한편, 포항시는 2005년부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700여개를 보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0만개의 폐형광등을 수거해 재활용했다.

선진교육도시 포항조성 본격화

포항시는 지역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중·고에 정수기를, 유치원에 교구·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는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통해 보건위생을 개선하고자 9억 원의 예산을 확보, 관내 124개 초·중·고등학교에 냉·온 정수기 1대씩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최초로 관내 93개 유치원에 교구·기자재 구입비를 100만원씩 지원하는 등 총 9천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학잠동 포항국민체육센터 개관



포항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포항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섰다. 포항시는 3월 5일 포항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학잠동에 위치한 포항국민체육센터는 전체부지 3,792㎡에 건물면적 2,449㎡로 헬스장과 탁구장, 에어로빅장, 취미교실(꽃꽂이, 사물놀이) 등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포항국민체육센터는 2006년 착공을 시작했으며, 총 공사비 40억 원 중 30억 원은 국비로 지원받았다.

몽골 시설채소재배기술 연수생 체험

포항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3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몽골 시설채소 재배기술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포항농업과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시설채소 재배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연수중인 이들 연수생 농식품 경공업부 온수드 국장 외 10명은 포항을 방문, 포항농업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농촌관광산업 현황과 개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포항시청을 방문하여 박승호시장을 만나 양국 관심사에 대해서도 환담하였으며, POSCO박물관과 홍보센터 및 포항제철소, 중앙상가 실개천을 둘러보았다. 특히 도심에 조성된 친환경적인 실개천과 영일만 신항 현장을 둘러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 4월 시민정보화 무료 교육 안내

- 교육과정 : 컴퓨터 왕초보 등 9개 과정 9개반
- 신청기간 : 2009. 3. 30(월) 09:00부터 선착순
- 교육 및 신청 접수 장소
 - 시청 시민정보화교육장 강의실(문화복지동2층) : 270 - 5825
 - 남구 시민정보화교육장 1, 2강의실(종합운동장2층) : 270 - 5823
 - 북구 시민정보화교육장(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층) : 270 - 5824
- 교육 과정 및 시간, 인원, 인터넷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culture.ipohang.org> (강좌/시설/공연 안내서비스)로 접속하면 된다. ID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후 실행
[문의 : 270-2304 정보통신과 지역정보담당]

>>> 청년층 뉴스타트(New Start) 프로젝트

- 참가대상 : 만15세~29세로 현재 취업(진로)문제로 고민하는 아래의 구직자
 - 고졸이하(대학, 전문대 중퇴자 포함) 학력자 중 비진학 청년층
 - 졸업 또는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
 - 위기청소년(관련기관의 추천 및 의뢰가 있는 청소년)
 - 구직 단념자(2년간 일, 교육, 훈련 미참가자)-단기근로반복자(최근 2년간 일용직, 계약직 등) 근로 반복 청년층
- 모집기간 : 2009년 3월 3일(화)~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 내 용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참여자에 대하여 모든 단계를 전담·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별상담(AP수립)·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취업알선(단계)을 거쳐 직장체험, 직업훈련, 경력적 일자리, 취업알선 등 참여(2단계) 이후 집중적인 취업알선(3단계)으로 취업까지 지속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가혜택 : 개인별 맞춤형(1: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구직기술 습득, 직장체험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우선참여 가능
- ※ 참가자 수당 지급: 1단계(4주) 수료자 30만원 지급
- 신청문의 : 전담상담원
 - 전화 및 메일 : 전화 054-256-7000, 메일 sangim@cojop.net
 - 방문상담 : 코잡 경북지사(포항시 북구 용흥동 625-2번지)

>>> 맞춤형 농업인 교육 연중 실시

포항시농업기술센터가 맞춤형 농업인 교육에 나선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욕구에 맞는 심화교육과 품목별 영농교육, 여가생활 및 생활기술 향상교육, 도시민 대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인 심화교육은 포항농업대학에 사과와 한우 과정(각 40명)을 개설해 매월 2회 출석을 통해 이론과 실시를 병행하며 영농기술 향상, 전문농업인력 양성,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안과

제 위주 교육으로 실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담당 270-3904으로 문의하면 된다.

>>>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순옥)는 3월 6일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포항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취임식을 열었다. 이번에 새로이 취임한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순옥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사회봉사활동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항여성단체협의회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이 취임식을 간략히 치러내고, 지난 3일 이 취임식에 소요되는 경비 300만원 전액을 포항시장학회에 기탁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꾸미루미' 입학식

포항시청소년수련관은 3월 5일 구룡포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꾸미루미'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식에는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 선생님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과회를 겸한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포항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6년부터 4년째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상북도의 후원을 받아 농어촌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문화생활지원, 급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포항지역에는 구룡포읍과 동해면의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2009. 3. 16 ~ 3. 31
 - 납부대상 :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소유자, 시설물은 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주택, 공장 등 제외)
 - 부과방법 : 자동차는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기간별로, 시설물은 부과기준일 현재(2008. 12. 31) 소유자에게 부과
 - 대상기간 : 2008. 7. 1 ~ 2008. 12. 31
- [문의 : 남구 270-6164, 북구 240-7165]

>>> 봄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합시다!

-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음
 -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입니다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낮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읍면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 실수로 산불을 내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

>>> 4월 29일은 경상북도교육감 보궐선거일

- 선거일시 : 2009. 4. 29(수) 06:00~20:00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90. 4. 30 이전 출생)자로서 2009. 4. 10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국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임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부재자 신고기간 : 4월 10일 ~ 4월 14일(5일간)
- [문의 : 시청 자치행정과 270-2091]

>>> 농기계 무상 대여 이용 안내

포항시농업기술센터가 연중 농기계 무상 대여 사업을 실시한다. 대여 가능 농기계는 논·밭 작업기, 과수·채소 작업기 등 총30종 53대로 무상 대여 기간은 기종별 1~3일이다. 희망농가는 각 읍면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270-3914)로 전화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대여 받을 수 있다.

>>> 포항환경학교 체험환경교육생 모집



포항환경학교는 4월부터 초·중학생(학교단체) 및 가족동반(개별 모집)을 대상으로 1회 40명 내외(가족동반 1회 20명)의 체험환경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신청은 포항환경학교홈페이지(www.pecoschool.net)를 이용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262-7469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신광면 만석리 소재 포항환경학교는 초화류, 수목류 등 총 500여종의 식물과 생태연못, 야생화동산, 숲길, 야외학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교육장, 체험학습장, 환경홍보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손으로 만나는 사랑 '점자명함갓기' 캠페인

경북점자도서관(관장 이재호)은 3월 10일 포항시청에서 '손으로 만나는 사랑, 점자명함갓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점자명함의 필요성을 홍보해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점자명함 제작 시연과 체험, 그리고 박승호 시장의 저서 '연어의 꿈을 점자로 번역한 점역서와 녹음테이프 전달식이 있었다.

>>>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 모집대상 :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강아령체조와 종이접기 전문자원봉사단을 양성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 모집기간 : 2009.3.9~2009.3.30
 - 교육내용 : 건강아령체조 3.25~4.10(수,금) 총6회, 종이접기 3.31~4.30(화,목) 총10회
 - 모집내용 : 선착순 접수 (건강아령체조 20명, 종이접기 20명)
 - 교육비 : 건강아령체조(재료비: 2800원), 종이접기(무료)
 - 교육장소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교육장
 - 신청조건 : 수료 후 봉사단에 가입하여 월1회 이상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
- [문의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이윤정 간사(248-8742~3)]

>>> 황사는 이렇게 대비합시다!

-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흙먼지를 말합니다.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때로는 상공의 강한 서풍을 타고 한국을 거쳐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갑니다.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황사에 이렇게 대비합시다.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 확인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음
-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감
-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에는 긴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 보호용 안경 등을 착용
- 귀가하면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음
- 채소나 과일은 더욱 깨끗이 씻어 먹음
- 가슴기 등으로 집안의 습도를 일정하게 조절함

》》 '경제의정' 으로 경기불황 극복에 팔 걸어



포항시의회는 지난 2월 24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경제난국 조기 극복을 위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 간담회를 열고 예산 조기 집행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산조기 집행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오는 4월 예정인 추경예산 편성 시 행사비, 해외경비, 일반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난국 조기극복 사업으로 재 편성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 타도시보다 대단위 투자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목표로 설정한 상반기내 발주 90%이상, 자금집행 60%이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분석과 시책개발을 통해 국가재 정운영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추경은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중점 두어야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오전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2009년도 제 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 등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먼저 일본T/F팀장으로부터 「일본인 관광객 1만 명 유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예산투자 효과 및 타당성 ▲일본인이 호감을 가지는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 인프라 구축상황 ▲구룡포 일본가옥과 홍보책자 관련 문제 ▲일본인 관광객의 선호상품이 무엇인지와 귀국 시 검역문제 등 장밋빛 계획보다는 일본 관광객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침체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하수찌꺼기처리 는 탄화방식이 적합”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간담회를 열고 2월 17일부터 3박 4일간 실시한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해외연수 결과보고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자원화시설 설

치의 중요성이 말해 주듯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의 효율성, 악취저감, 최종 부산물의 안정적 처리방안 등을 감안하여 최종부산물을 포스코에서 전량 처리함을 전제로 친환경적이고 첨단원천기술로 건설하는 탄화시설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설의 수리 및 고장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설비로 건설할 것을 주문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 포항시의정회 방문, 의정활동 설명회 가져



이상구 포항시의회 부의장과 문명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사)포항시의정회를 방문해 제5대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의정활동 성과 및 2009 의회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한 전·현직 의장 및 의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일행 내방



이상구 포항시의회 부의장과 신계만 의회사무국장은 지난 2월 17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의회운영 사례 및 청사시설 견학을 위해 포항시의회를 방문한 이석원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및 상호발전 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회 의원들은 2009 의회운영 방향 및 혁신과제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의회차원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하지만에 뜻을 같이했다.



제목 | 유년의기억-기다림 | 크기 | 27cm X 22cm | 재료 | 혼합재료



권정미 Gwon Jung Mee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 동학예술제(08)경주엑스포전시장 / 유망작가발굴을위한이트올산2008올산mbc / 포항미술협회전 (08)포스코갤러리 / 아프리카아티스트지원기금이런 자선전시회&옥션 (08)포항미르갤러리 / 제9회포항국제아트페스티벌(빛의미래, 철의미래) (08)포항문화예술회관 / 경북창작미술협회전 대미전 (08)경주교육회관, 서라벌문화예술회관 / 경주환경미술협회전 (08)경주서라벌문화 예술회관 / 포항광양교류전(07.08)포항 / 동연전(02-08) / 원효기록화전(01)분항시 / 현 한국미술, 환경미술, 장미회, 동연회

작품평

우리나라를 둘러본 해외 건축가가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한 곳은 서울의 달동네였다고 한다. 비록 삶의 애환과 고단 함은 배제되었지만 그는 시간의 창을 통해 덕지덕지 붙어있는 서울의 오래된 이야기를 보았을 것이다. 벌써 아득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근대화·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욕심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풍경을 잊은지 오래다. 분명 말라 갈라진 것 같은데 느닷없이 샘솟듯 두레박을 가득 채우는 기억의 우물. 작가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도시화된 사회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한잔의 신선한 음료수처럼 기억의 원풍경을 화폭에 담아 낸다.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